

건강한 노동자가 만드는 오늘, 시민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는 부산도시철도의 청결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114개 역사 및 5개 차량기지사업소의 시설경비부터 전동차 내·외부 청소, 지하철 민원 관련 상담센터 운영 등 부산시민이 도시철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당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100여 명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로 편입된 바 있다. 노동자 대다수는 50~60대 중장년 여성으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의 여성과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의 경영철학으로, 건강한 노동자가 부산도시철도 이용자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사한다고 믿는다.

글·사진 권인혜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안전관리팀 송지은 보건관리자

Q. 보건관리활동을 소개해주세요

노동자 건강진단, 화학물질 관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교육, 건강증진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4개의 역사를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을 자주 접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사용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바뀌는 사용물질에 대한 자료를 SNS에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Q. 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노동자 대다수는 중장년 여성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게 ‘논슬립’ 작업화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틀 넘어짐 방지턱과 샤워장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무 전 스트레칭을 통해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골격계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Q. 감정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콜센터 감정노동자들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정신건강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치료를 받거나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환경·미화 담당 노동자들 대상으로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보건관리자로서의 포부를 말해주세요.

가까운 목표로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요.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건관리자로 남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하는 산업환경 속 보건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할 것이며, 관련 교육도 찾아 나설 것입니다. 🐾

